

Vol.333 May + June

세아가족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들



회오리바람과 함께 나타나는 눈부신 미모의 전사,
세아에샵의 원더우먼 김영숙 과장.
반짝반짝 눈을 빛내며 정의를 수호하는 원더우먼처럼
업무는 물론 두 아이의 엄마 역할까지 완벽하게
해내겠다는 그는 세아가 원하는 21세기형 인재다.



Start Line

아인슈타인은,
시간이란 우주공간 속에서 사람의 움직임에 따르는
상대적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2011년도 어느덧 반이 지났습니다.
생각하기에 따라
벌써 반이 지났을 수도,
반이나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세아가족들의 2011년은 얼마나 남았나요?
목표한 곳에 도달하기 위해
다시금 숨을 고르고 출발선에 설 때입니다.



Vol. 333
MAY | JUNE 2011

Contents

Special Theme

<u>02</u>	프롤로그	성실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다
<u>04</u>	깊은생각 열린마음	한결같은 사람이 아름답다
<u>06</u>	세아의 이야기	'성실'한 기업문화의 경쟁력
<u>08</u>	why&how	성실한 기업만이 살아남는다
<u>10</u>	세아의 노하우맨	내가 기억하는 최고의 성실 사우는?

Story in SeAH

<u>12</u>	SeAH Special Report	4기 챌린지 리더 임명장 수여식 세아특수강 유가증권시장 상장
<u>20</u>	Open your Team	세아엠앤에스 여수공장
<u>24</u>	Talk by Specialist	세아에샵 품질경영팀 김영숙 과장

Happy in SeAH

<u>28</u>	와이키키 브라더스	세아베스틸 낭만파 3인이 모였다
<u>32</u>	와글와글	만약 내가 조선시대에 뚝 떨어진다면?
<u>34</u>	행복한 나들이	한국번디 기술연구소 연구3팀
<u>38</u>	세아가 응원합니다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 장학증서 수여식
<u>42</u>	세아뉴스	
<u>47</u>	사우동정	

〈세아가족〉통권 333호 2011년 5+6월호

발행일 2011년 6월 13일 | 발행인 이운형

발행처 세아그룹 (서울 중구 봉래동 1가 10번지) | 홈페이지 www.seah.co.kr

기획편집 세아홀딩스 02-3783-8163

디자인 · 제작 하나로에드컴 02-3443-8005 | 표지촬영 다부스튜디오 02-766-8025

※외부 필자의 글은 〈세아가족〉의 편집방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성실함은 이길 수 있는 것 입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은 많지만
성공하는 사람은 일부뿐이고,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도
반짝 뜨고 지는 별이 될 수도 있다.

성공과 실패를 판가름하는 지표는
꾸준함과 끈기다.

토끼처럼 뛰기보다
거북이처럼 걸어라.
자신의 재주만 믿고 쉬어가는 토끼보다
끊임없이 노력한 거북이가 성공한다.

성공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에게 온다.
성실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미국의 정치가이자 발명가로 널리 알려진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런 말을 했다. “백 권의 책에 쓰인 말보다 한 가지 성실한 마음이 더 크게 사람을 움직인다.”
업무도 결국에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손바닥 뒤집듯 이익을 좇는 태도보다 성실함일 것이다.

글 ● 편집실

한결같은 사람이 아름답다

‘성실(誠實)’의 사전적 의미는 정성스럽고 참됨이다. 참되다는 것은 남이 지켜보고 있지 않아도 거짓 없이 최선을 다하는 것, 스스로 보람되기 위해 하는 노력이다. 개인도 사회도 성실한 사람을 원하지만 막상 강한 인상을 남기기 어렵기에 ‘성실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기를 즐기는 사람은 없다. 개개인들이 개성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기를 원하는 세상이다.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성실하고 끈기 있는 사람은 이득을 보기 힘들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한 사람이 성공한 사례는 도처에 널려 있다.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국민 MC 유재석은 바르고 성실한 이미지로 잘 알려져 있다.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한다’는 말이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성공을 하면 변하기 마련이지만 길었던 무명시절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초심을 잃지 않고 한결같이 방송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모습이 더욱 더 그를 돋보이게 만들었음은 물론이다.



〈무한도전〉에서 방송한 ‘팬미팅’편에서 그는 “방송이 너무 안 되고 하는 일마다 자꾸 어긋난 적이 있다. 그 때 간절하게 기도했다. 한번만 기회를 주시면, 단 한번만 개그맨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그를 돋보이게 만든 것은 어떠한 예능적 재능보다도 성실함이라는 사실이 아이러니하다. 한국 예능사의 가장 독보적인 위치까지 오른 유재석은 오늘도 여전히 여느 신인 못지않은 열정과 성실, 겸손으로 방송에 임해 최고의 스타로 군림하고 있는 것이다.

가수이자 프로듀서로 성공한 박진영의 경우는 어떤가? 큰 꿈을 안고 미국으로 떠났지만 그는 곡을 팔기는커녕 미팅조차 할 수 없었다고 한다. 절망에 빠졌지만 서두르기보다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밤에는 곡 녹음을 하고 낮에는 하루 종일 11개월 동안 음반사를 돌았다. 하지만 음반사를 가도 만날 수 있는 건 안내 데스크의 아가씨뿐이었다. 그때부터 ‘철저한 한국식 마케팅’을 펼쳤다. 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무식하다고 생각할 수조차 있는 성실한 방법이었다. 과자와 음료를 사서 안내 데스크 아가씨에게 주면서 대화를 나눴다. 회사 전체의 소식을 알고 있는 그들의 도움으로 그의 곡을 담은 CD가 음반사에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그리고 월 스미스가 음반을 제작하는데 곡을 사고 싶다는 전화가 왔다.

결국 월 스미스에게 곡을 판 이후로 박진영은 뉴욕으로 옮길 수 있었고 두 곡을 더 팔았다. 박진영이 판 3곡은 3년 동안 빌보드 앨범차트 TOP 10에 오르는 영광을 안았다.

물론 두 사람의 성실은 뿌리는 같지만 성격은 판이하게 다르다. 그러나 공통점은 계속해서 한결같이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감언이설과 교묘한 술책으로 눈은 속일 수 있어도 마음은 속일 수 없기 때문이다.

평범한 사람이라도 성실하기만 하다면
뛰어난 재능을 지닌 게으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
성실은 성공을 위해 지불해야 할 대가다.



성공의 지름길

이직철이 되면 몸값을 높이려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직장인들이 많고, 또 그것이 당연시 되는 세상이지만 눈앞의 이익보다 멀리 내다보는 사람들은 몸값보다 자신의 이름값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이 뭘 잘 몰라서, 무지해서가 아니라 착하게 동료를 배려하고 착실하게 맡은 자리에서 임무를 완수해내는 것이 결국은 자신의 몸값을 올리고 성공도 가져다준다는 단순한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기업 채용 인재상의 항목에서 ‘성실함’이 빠지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올해 1분기 동안 홈페이지에 등록된 채용공고 1만2,665건을 분석한 결과, 기업에서 가장 많이 요구하는 인재상으로 ‘성실성(74.5%)’이 1위에 올랐다. 인재상은 기업형태별로 차이를 보였지만 대기업, 공기업을 비롯, 중견기업, 중소기업 모두 성실성을 최고로 꼽았다.

평범한 사람이라도 성실하기만 하다면 뛰어난 재능을 지닌 게으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 성실은 성공을 위해 지불해야 할 대가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고생하지 않고 얻은 것은 그 가치가 작기 때문이다. 성공에 지름길이 있다면 그것은 ‘성실’이라는 가치일 것이다.

오늘날 세아를 만든 근본은 바로 사람을 중시하는 기업문화라 할 수 있다. 국내외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세아의 기술력의 근간도 바로 사람의 경쟁력에서 출발한다. 사람의 소중함과 회사에 대한 애착, 그리고 열정이 모인 것이 곧 세아의 경쟁력을 이뤘다.

글 ● 세아특수강 이명기 포항공장장

‘성실’한 기업문화의 경쟁력



신뢰와 성실의 문화가 낳은 경쟁력과 자부심, 세아특수강

지금과 비교해 1988년 막, 세아특수강에 입사했을 때에는 많은 부분에서 부족했던 시기였다. 직원들의 잦은 이직과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고 늘 적자에 허덕였다. 그러나 IMF 이후 끊임없는 개선활동, 지속적인 투자와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세아특수강은 급격한 성장을 거듭하여 지금의 경쟁력을 갖추었다. 그 원동력은 ‘직원 스스로가 만들어 가는 회사’라는 기업문화와 자부심이었다. 시스템이나 인력이 부족하고 힘든 여건이었지만,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어려울 때는 서로 돕고, 기쁠 때는 함께 감사하며 여러 난관들을 극복했다. 이러한 ‘내가 회사의 주인’이라는 의식이 품질의 경쟁력, 제품의 차별화를 낳으며 세아특수강을 시장을 선도해 나가는 시장점유율 1위 기업의 위상으로 탄생시킨 것이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공유하고, 서로를 믿고 일하며 끊임없이 성과를 갱신해 가면서 동료의 소중함과 성실함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자신감과 경쟁력도 커졌다. 이는 비단 세아특수강뿐만 아니라 세아의 구성원 전체에게서 느껴지는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세아그룹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면, 계열사 별로 상황과 입장이 다르지만, 신뢰를 바탕으로 도우면서 성공적으로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을 접할 수 있었다. 그런 성실한 자세들이 현재의 세아를 만들었다.

시대가 바뀌어도 성실한 자세는 경쟁력 창출의 기본

요즘 시대를 일컬어 소위 스마트 시대라고 한다. 스마트폰의 기능이 워낙 다양하기도 하고 편리함으로 무장된 환경에 살다 보니 스마트 시대라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다. 예전에는 감히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 하지만 이처럼 편리함과 속도의 경쟁으로 시대가 바뀌면서 과정이야 어떻든 결과를 중시하는 풍조가 생겨났다. 과거에는 단합, 화합, 상호 존중, 그리고 희생이라는 가치가 늘 우선됐지만, 지금의 젊은 세대들에게는 편하고 빠른 일, 쉬운 일을 선호하고, 조직보다는 개인이 먼저인 경향이 강한 것 같다. 그러다 보니 타인과의 가치관 차이가 더욱 커져간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기본이 있듯이 세아의 역사에는 성실한 자세와 신뢰라는 가치가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존재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이러한 가치는 시대가 아무리 바뀐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야 하는 부분일 것이다.

우리는 지금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가진 경쟁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가고 있다.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급격히 변한다고 해도, 결국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은 바로 고객이다. 고객의 요구를 성실히 수행하고, 고객을 만족시키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고 보람을 만든다는 철학이 있어야 진정한 서비스 정신이 발휘된다. 고객을 생각하는 차원이 달라져야 진정한 고객만족도 가능해진다. 세아가 추구해 온 성실함의 가치는 앞으로도 고객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승화하여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모두가 행복해지는 기업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무한경쟁사회에 살고 있다. 예전에는 묵묵히 일하고 근면 성실한 사람이 최고였지만, 무한경쟁의 사회에서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그 첫 번째 핵심은 창의력이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 일이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근면하고 성실한 자세를 겸비해 나간다면, 더 큰 경쟁력과 발전은 물론 회사의 성장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가지는 바로 행복이다. 세아라는 이름에서와 같이 우리는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기업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세상을 아름답게’하는 기업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건 바로 행복일 것이다. 종업원이 행복해지는 기업, 회사의 성장을 통해 행복해지는 주주, 그리고 제품 경쟁력을 통해 최고의 품질을 사용하는 고객의 행복을 통해서 우리는 세아의 가치를 새롭게 이룩해 나갈 수 있다. 세아의 미래를 짊어질 여러 후배들이 이러한 무한한 창의력과 근검·성실한 자세로 무장하여 세아의 경쟁력을 키우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행복한 사회의 첨병으로 성장해 주길 기원한다.



한치 앞을 가능하기 어려운 치열한 경영환경을 뚫고 '이익창출과 사회공헌'이란 기업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장수기업으로 영예로운 전통을 이어가는 기업은 얼마나 될까? 현존하는 기업의 수는 약 120만 개로 추산되는데 그 중 100년이 넘는 장수기업의 숫자는 22,000개(1.64%)로 창업보다는 수성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시사한다.

글 ● 민도식 지식전략연구소장, <나를 확 바꾸는 실천독서법> 저자

성실한 기업만이 살아남는다

장인정신이 필요한 때

장수기업이 되는 것은 창업주 정신이나 경영층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한 영역이다. 세아그룹은 창립 이래로 “신뢰와 성실로써 풍부한 가치를 창조하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인류사회에 기여한다”는 경영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오늘도 구성원 모두가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세계적인 장수기업의 공통적인 특징은 전통방식을 잘 고수하면서 노하우를 발전시키고, 직원들이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고객과의 약속을 철저히 지키고, 직원들 간의 감성적인 소통이 잘 된다는 것이다.

세아가 100년을 넘어 역사에 길이 남는 장수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기업의 미션이나 비전과 연결되고, 나아가 경영활동과 시스템의 정착으로 이어져야 한다. 또한 멘토링을 통해 선배들의 노하우가 후배들에게 전수되고, 후배 또한 선배들의 경험을 존중하면서 청춘어람의 가치를 만들어 내야 한다.



성실한 것은 시대가 아무리
변한다하더라도 그 가치가
존중받아야 할 영역이다.
성실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
에게 신뢰를 받는 것'을 말한다.

지금 기업 내에서는 '건전한 노동관'이 점차 사라지고 '전통적 기술 노하우'가 후배들에게 전수되지 않는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업무의 몰입보다는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거나, 역량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정보화 기기나 인터넷 뉴스를 보는 것에 시간을 낭비하는 직원이 늘어가고 있다. 때를 기다리며 성실한 자세로 묵묵히 일하는 직원과 최고가 되기 위한 장인정신을 발휘하는 기술직을 존중하는 풍토가 사라지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다.

한 우물만을 판다

성실한 것은 시대가 아무리 변한다하더라도 그 가치가 존중받아야 할 영역이다. 성실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신뢰란 누구에게나 '예측가능한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성실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조직생활에서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상사와 주위 동료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상관없이 소신을 가지고 프로정신으로 언제나 제대로 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보신주의(保身主義)가 판을 치고, 부서이기주의가 팽배한 회사치고 장수기업이 된 역사는 없다. 성실한 구성원들이 시너지를 발휘할 때 기업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지만, 사양길에 접어든 기업은 재개발 지역의 풍경처럼 조직 곳곳에 시스템의 누수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기업의 역사에서 사라진 진로그룹, 해태, 쌍방울 그룹 같은 곳은 자신이 잘 하는 곳에 성실함으로 한 우물을 판 것이 아니라 잘 알지도 못하는 곳에 눈을 돌리는 사

이 짧은 기록을 남기고 역사에서 사라져 갔다.

지금 세아는 태동기와 성장기 그리고 도약기를 거쳐 또 한 단계의 도약을 통해 장수기업의 인프라를 구축해 내야 할 귀로에 서 있다. 지금까지 잘해 왔다고 '승자의 저주'에 빠져드는 낙관적 견해를 가져서도 안 된다. 벤치마킹 모델을 찾아 배울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적 장수기업 중에서 창업의 토대를 기반으로 규모를 키워 세아에게 모델이 될 수 있는 기업을 찾기란 쉽지 않다. 스스로 역사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것이 필요한 법이다. 세아는 그 토대를 다양한 사업변신보다는 성실한 문화와 성실한 인재에서 찾고 있다.

장수기업을 위해 지금 세아에서 근무하는 조직인이라면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답을 할 필요가 있다.

- 장수기업이 되기 위한 우리 회사의 경쟁력은 무엇인가?
- 내가 회사를 그만 두게 될 때 조직을 위해 내가 남겨 줄 것은 있는가?
- 퇴직 후 세아의 CI를 보았을 때 뛰는 가슴을 느낄 수 있겠는가?
- 내 손자가 성인이 되었을 때 할아버지가 맘을 흘린 세아에 입사하는 것을 적극 추천할 수 있는가?

성실맨을 찾아라!!

내가 기억하는 최고의 성실 사우는?

‘삼인행 필유아사(三人行 必有我師)’ 공자는 세 명이 앞서 걸어가면 그 중 반드시 스승이 있다고 했다. 어떤 사람이든 배울 점이 있는 것이지만 특별히 우리 곁에 함께 하며 기억에 단단히 자리 잡은 동료가 있다. 내가 기억하는 세아의 ‘성실맨’을 이야기한다.

세아 E&T 경영지원팀 박선희

세아 E&T의 꽃미남 산업기기부문 생산팀 김효준 사우

늘 묵묵히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모습, 굶은일도 솔선수범하는 모습, 타 부서의 일도 내일처럼 애쓰는 모습들은 함께 일하는 사우로서 성실함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동료입니다.

세아특수강 충주생산팀 정태화 계장

세아특수강 충주공장 열처리 공정의 변준혁 사우

충주공장의 열처리 공정은 2인 1조 교대 근무체제로 12시간 마다 교대로 근무를 합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비해 업무시간이 길고 업무량 또한 상당하여 맡은 일만 해내기에도 굉장히 벅잡니다. 하지만 변준혁 사원은 언제나 묵묵히 책임을 다하면서도 돌발상황 시에는 누구보다 먼저 나서 동료의 일을 돕는 성실하고 적극적인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세아 ESAB 경영지원실 손은숙 대리

세아 ESAB 해외영업팀 조창제 팀장

언제나 묵묵히,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열심히 일합니다. 잦은 해외 출장으로 인한 피로에도 불구하고 어떤 도움을 요청해도 거절하지 못하는 친절함 매력, 항상 웃는 얼굴로 먼저 건네는 인사 의왕, 타인에 대한 배려가 그를 더 빛나게 합니다.

세아 E&T 산업기기부문 설비기술팀 감재곤 팀장

같은 팀에서 동고동락한 플랜트사업부 영업팀 박승철 Part Leader

자기 전공 영역인 전기분야를 뛰어넘어 새로운 운반설비 분야를 개척하고 습득한 점을 높이 사기 때문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 남다른 성실한 업무 추진력으로 그룹 내외의 운반설비 프로젝트 진행 시 최고점을 향해 정확한 판단력과 카리스마로 돌진하는 모습이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는 멋진 성실맨입니다.

한국번디 펄택 경영기획팀 박수연

한국번디의 성실 사원, 영업기획팀 권용일 대리

모범적인 회사생활로 올해 모범사원 상도 받았고, 꾸준한 이력 등의 자기계발로 매월 상품권을 받는 독종! 직급과 부서를 막론하고 여러 동료들과의 어울림으로 친한 친구도 많은 그. 늘 웃음 짓는 호감형 얼굴에 인사성까지 좋아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지요. 입사 5년차로 아직 완벽한 모습은 아니지만, 앞으로 한국번디의 큰 인물이 될 것이라 의심치 않습니다.

강남도시가스 경영관리팀 손성영

강남도시가스 경영관리팀 조효탁 대리

성실을 정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성실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책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저희 팀의 조효탁 대리는 성실이라는 단어에 가장 적합한 인물입니다. 자신이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누군가는 해야 할 굶은일이 생겼을 때 늘 솔선수범합니다.

세아 E&T 산업기기부문 생산팀 한번

세아 E&T 산업기기부문 생산팀 이경한 사우

매일 아침 회사에 가장 먼저 출근해서 출근하는 모든 직원들을 반겨주고, 퇴근할 때는 가장 늦게 퇴근하여 뒷정리를 책임지는 이경한 사우야말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이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립니다.





4기 챌린지 리더 임명장 수여식 현장

4월 25일 세아홀딩스 대회의실에서는 2011년 새롭게 선발된 4기 챌린지 리더의 임명장 수여식이 있었다. 6개 사에서 선발되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인 17명의 4기 챌린지 리더들은 임명장 수여식 직후 진행된 첫 번째 워크숍에 참여하여 1년 과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한 이운형 회장은 챌린지 리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명장을 직접 건네며 격려했으며, 아울러 축하와 당부의 메시지를 전했다.

세아의 우수 인재로서 각 사 경영진들의 추천과 검증 절차를 거쳐 그 가능성을 인정받은 17명의 4기 챌린지 리더가 탄생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업무 수행능력이 높고, 성취하고자 하는 의욕이 강하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자기계발을 게을리 하지 않는 기본자세를 갖춘 점이다. 리더의 실력을 다지기 위한 첫 번째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운형 회장은 챌린지 리더를 위해 리더 역할의 중요성과 리더들이 갖추어야 할 실력에 대해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이운형 회장
메시지



● 리더의 역할이 특히 중요한 기업환경

국가가 됐던 어떤 사회가 됐던 간에 그 국가나 사회 전체를 이끌고 가는 것은 5~10% 되는 각 분야의 상위 계층들이라고 합니다. 훌륭한 지도자와 건전하고 지혜로운 리더들이 있는 사회는 더 발전하고,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이끄는 사회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큰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일어나는 이슈를 통해 잘 아실 겁니다. 국가나 사회와 달리 특히 기업은 각 분야와 부서들의 리더들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면 치열한 경쟁에서 밀려나고, 바로 도태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에서의 리더 역할은 더욱 중요합니다.

● 팽팽한 견제가 오가는 기업 간의 경쟁환경

요즘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꼽히는 애플 사가 있습니다. 이곳은 아주 어마어마한 회사입니다. 1/4분기 기업 실적을 보면 매출만 247억 달러입니다. 영업이익은 30% 정도로, 78억 달러의 이익을 낸 삼성전자보다도 3배나 많은 영업이익을 한 분기만에 내는 대단한 회사지요. 이렇게 월등히 나은 회사가 최근 삼성전자를 고소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사업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등이 되려고 따라오는 삼성전자가 잠재적으로 큰 경쟁자가 될 가능성을 의식하고 미래의 경쟁자에 대한 견제를 하고자 이뤄진 조치였다고 신문에 실렸습니다. 이와 같이 기업 간의 경쟁에서는 긴장하지 않고 쉽게 넘어갈 일들이 없습니다.

● 기업 간 경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리더의 실력

경쟁환경의 현실은 기업 안에 있는 리더들의 실력에 의해서 기업의 승패가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업의 리더들이 갖는 실력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리더들의 실력이라는 것은 먼저 얼마나 건전한 사고방식을 가지는가입니다. 상식에 어긋나지 않은 건전한 사고방식. 이 말이 진부하겠지만, 상식에 어긋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그렇게 행동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얼마나 조직적인 업무 수행을 하는가입니다. 개인 플레이가 아니라 조직이 함께 움직이고, 조직을 이용해서 하는 업무 수행이 훨씬 더 시너지가 크고 효과가

크다는 것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과 함께 하는 업무 수행을 잘 하는 리더가 실력 있는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하나는 변화하는 환경을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대책을 세우고 시행하는 자세, 이것은 리더들이 얼마만큼 포용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변화하는 세계를 받아들이고, 소화시켜서 내 것으로 만드는 힘이 바로 실력입니다. 포용력이 있어야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마음과 자신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기업경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리더의 실력이란?

1. 얼마나 건전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가
2. 얼마나 조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가
3. 얼마나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포용력이 있는가

● 챌린지 리더 과정은 리더의 실력 증진 기회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기업 리더들의 실력이란, 건전한 사고방식을 갖고 팀이나 다른 부서와 함께 조직적인 업무 수행을 추구하는 자세이며,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만드는 포용력입니다. 리더들을 키운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실력을 더 증진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계시는 차세대 리더들에게는 이러한 실력 증진을 위해 자기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실력 향상과 함께 우리 세아도 탄탄한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더욱 더 자기계발에 정진하여 세아의 리더로서,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의 리더로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4 t h C h a l l e n g e L e a d e r s

4기 챌린지 리더를 소개합니다

챌린지 리더 워크숍 현장! 뛰어난 능력과 냉철한 이성, 뜨거운 마음 삼 박자를 고루 갖춘 17명의 인재들을 만난다. 높은 업무 수행 능력과 성과에도 자기계발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 이들의 강한 포스를 느껴보자.

박종학 대리

| 세아제강 실수요팀 |



정명재 과장

| 세아제강 군산 업무지원팀 |



정남호 대리

| 세아베스틸 영업1팀 |



서석민 대리

| 세아베스틸 공정연구그룹 |



손준영 과장

| 세아베스틸 구매2팀 |



김기호 대리

| 세아베스틸 생산관리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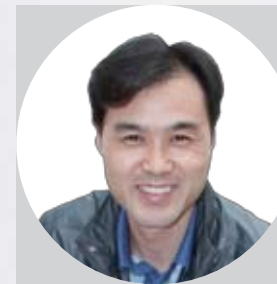
박병희 대리

| 세아베스틸 연주팀 |



이태원 대리

| 세아특수강 포항 지원혁신팀 |



김현태 과장

| 세아특수강 대구영업소 |



김성소 대리

| 한국번디 수출팀 |



문정원 대리

| 한국번디 광주 업무지원팀 |



최용식 과장

| 한국번디 광주 생산물류팀 |



서영춘 과장

| 세아에샵 구매물류팀 |



황인오 과장

| 세아에샵 국내영업팀 |



조정제 과장

| 세아에샵 품질경영팀 |



김영숙 과장

| 세아에샵 품질경영팀 |



윤창호 과장

| 세아이엔티 기술팀 |





세아특수강, 유가증권시장 상장

6월 1일 세아특수강이 세아의 계열사로는 네 번째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됐다. 세계 최대의 선재제품 생산능력을 보유한 세아특수강의 상장은 세아그룹의 신뢰도 높은 이미지를 바탕으로 최근의 국내 자동차와 전자 산업 호황과 맞물려 오랜만에 만나는 철강 우량주라는 평가와 함께 주식시장의 핫 이슈로 떠올랐다.

글**세아특수강 경영기획팀 이동진 대리

시장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성공적인 거래소 상장

한국거래소 종합홍보관에서 열린 세아특수강의 상장 기념식에는 한국거래소 이창호 부이사장,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서진석 부회장, 대표주관사인 하나대투증권 장승철 대표, 세아홀딩스 김진규 대표, 세아특수강 유을봉 대표, 임성수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내외빈 50여 명이 참석하여 세아특수강이 유가증권시장에 첫 공개되는 순간을 지켜보았다.

기념식은 세아특수강의 비전과 중장기 목표인 2014년 매출액 1조 원 달성, 글로벌 종합부품 소재기업으로의 도약을 형상화한 레이저 쇼로 시작해, 상장 계약서와 기념패 전달식, 최초(기준) 가격 확인 후 기념 서명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9시 개장과 동시에 공개된 최초(기준)가격이 공모가 대비 16% 높은 32,500원으로 결정된 것을 확인하며, 행사에 참석한 임직원들은 역경을 이겨 내고 오늘의 건실한 세아특수강을 이루었다는 벽찬 감격에 차오르기도 했다.

회사의 규모에 걸맞은 투명한 발전 일구려 상장 결정

2010년 6월 대표주관사인 하나대투증권과 IPO 계약 체결 후, 세아특수강은 1년간의 준비를 거쳐 마침내 그 결실을 맺었다. 세아특수강의 총 상장 주식수는 857만 주, 공모가격은 28,000 원.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에 힘입어 공모가 대비 16% 상승한 32,500원 최초(기준)가격으로 거래를 시작하여 이를 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성공적인 상장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로써 세아홀딩스가 100% 보유하고 있던 세아특수강의 주식은 상장 후 최대 주주인 세아홀딩스 69.9%, 우리사주조합 5.8%, 기타 주주가 24.3%를 보유하게 됐다. 세아특수강은 2014년 매출액 1조 원 달성을 목표로 하면서, 향후 회사의 규모에 걸맞게 더욱 투명한 성장을 위해 상장을 결정했다. 또한, 회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세아의 주력 기업으로 성장하여 그룹의 위상을 높이려는 의지도 크게 작용했으며, 무엇보다 여러 수요가의 요구가 컸다.

‘세계 최대의 생산규모, 시장점유율 1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가능성’ 높게 평가

4~5월 IPO 관련 IR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4월 27일 주요 투신사 일대일 미팅을 시작으로 소규모 간담회, 애널리스트, 기자 간담회를 거쳐 마지막 5월 12일 기관 IR에 이르는 모든 IR 활동에서 세아특수강의 과거와 현재 실적, 미래에 대한 명확한 계획과 비전, 강점과 약점에 대한 수많은 질문세례가 쏟아졌다. 예리한 질문들이 이어졌지만, 세계 최대의 생산 규모를 갖춘 점, 압도적인 시장점유율 1위라는 강력한 시장지배력,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와 긍정적인 전방산업 상황 등 세아특수강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유을봉 대표 상장 기념 메시지

세아특수강이 세아그룹에서 네 번째로 상장을 하는 역사적인 날을 맞이했습니다. 여기에 이르기까지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세아가족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회사가 상장될 수 있도록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준 세아특수강의 임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은 세아특수강에게 제2의 창업과도 같습니다. 세아특수강은 상장을 통해 2014년 매출액 1조 원 달성과 글로벌 종합부품 소재기업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여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우량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임직원들이 윤리적으로 모범이 되는 회사, 지역과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회사, 주주와 고객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회사로 거듭나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자 하는 세아의 의지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세아가족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차별된 설비, 앞선 기술 경쟁력으로 국내외 강력한 시장지배력 형성

세아특수강은 2002년 10월 국내 업계로는 최초로 수소벨로(H₂ HICON Bell Furnace)를 도입해 균일한 탄소 구상화로 고품질 선재의 시대를 열었다. 2003년 9월에는 자동화 산세·피막 설비의 국산화에 성공해 이물질과 녹을 제거하는 산세능력을 200% 향상시켰다. 이러한 차별된 설비와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부가 제품을 생산하며 2010년 매출 5,270억 원 달성, 시장점유율 38.7%에 이른 세아특수강은 2000년 이후 국내 CHQ Wire 시장을 선도하는 시장지배력을 강력하게 구축했다. 나아가 글로벌 시장 확대의 일환으로 2007년 6월 포스코차이나와 합작으로 중국 상해 인근의 난통에 현지법인 포스세아선재를 설립해 중국에 진출한 현대·기아자동차나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에 부품용 소재를 공급한다. 포스세아선재는 설립 2년 만에 흑자를 기록, 현재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루고 있으며, 향후 중국 자동차 시장의 성장에 발맞춰 북경에 2013년 가동을 목표로 한 제2공장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 구축

세아특수강은 기존의 CHQ Wire, CD Bar, STS Bar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2011년부터 신 성장동력으로 Bar To Bar, Peeled Bar 등의 신규사업을 시작한다. Bar To Bar는 주로 자동차 조향장치인 고강도

Rack Bar용으로 사용되며, Peeled Bar는 자동차 부품, 조선 엔진부품, 유압기기 등에 적용된다. 세아특수강은 이러한 차별된 고부가가치 신규사업을 통해 기존 자동차 위주의 수요 산업을 조선과 기계부품으로 넓히고, 소형 부품에서부터 고부가가치의 대형 부품까지 시장 확대와 사업 다각화를 추진해 기존 사업과 더불어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글로벌 종합부품 소재기업을 지향하는 세아특수강

세아특수강은 지속적인 신규투자를 통해 생산능력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현재 진행 중인 설비 증설이 완료되는 2015년 무렵에는 연간 생산능력이 기존 38만t에서 65만t으로 늘어난다. 그렇게 되면 다양한 국내외 고객의 수요 대응과 생산 확대에 따른 규모의 경제 실현은 물론, 원가 경쟁력 확보를 비롯한 업계 1위의 시장점유율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세아특수강은 자동차, 기계, 전자, 조선 등 다양한 전방 산업에 핵심 부품소재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전방 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매출도 꾸준한 상승세를 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주력인 자동차 산업은 국내 업체들의 약진과 FTA 체결, 중국 등 해외시장 선점으로 가파른 성장이 예고되며, LCD·LED TV, 프린터 등 전자제품 시장의 성장도 매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아울러 설비 시험가동이 한창인 충주2공장 과 신규사업으로 시작한 Bar To Bar와 Peeled Bar가 각각 7월과 11월에 가동되면 큰 활약이 기대된다. 중국 자동차 시장의 성장에 발맞춘 북경지역의 제2 중국공장도 계획대로 2013년 가동을 시작하면 글로벌 시장 확대도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세아특수강은 이렇게 차별된 제품 경쟁력, 업계 최고의 생산능력, 안정적인 원재료 수급, 다양한 우량 고객 확보 등 세아특수강만의 강점들을 더욱 강화하고, 신 성장동력인 신규사업과 글로벌 시장 확대를 통해 2014년 매출액 1조 원을 달성하여 명실상부한 글로벌 종합부품 소재기업 실현을 향해 차근차근 나아가고 있다.



 세아특수강 기획인사파트 강동균 파트장	 세아특수강 충주공장 봉강파트 장효영 파트장	 세아특수강 봉강판매1팀 오제량
우량하고 투명한 기업 세아특수강 2010년 6월 상장 주관사인 하나대투증권과 IPO(기업공개) 계약을 체결하고, 1년간의 준비를 거쳐 드디어 성공적으로 상장을 마쳤습니다. 20여 년간의 회사 역사를 돌아켜보며, 그룹 관계자와 세아특수강 임직원 모두가 목표 실현을 위해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고,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상기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투자자들이 세아그룹에 대해 우량하고 투명한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상장 후에도 이러한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높이며 주주와 고객의 가치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생겼습니다. 세아에서는 네 번째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세아특수강이 기업공개를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함으로써 세아특수강뿐만 아니라 세아 전체의 위상을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더 큰 성장의 첨병이 될 충주2공장 CD Bar와 신규사업인 Bar To Bar, Peeled Bar 생산을 위해 2010년 8월 착공한 충주2공장은 3월 중순 건설을 마치고 설비 설치가 한창입니다. 고품질, 고사양을 요구하는 High End 시장을 겨냥해 '조정밀직진 Bar' 생산 설비가 양산 가동 중이고, LCD 모니터와 LED TV에 사용되는 Pem Nut 전용 설비의 막바지 세팅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두 설비가 가동되면 기존의 CD Bar 제품보다 확연히 차별된 품질과 기능의 제품 생산으로 더 큰 고객 만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7월 가동 예정으로, 한창 기초 공사가 진행 중인 Bar To Bar 설비인 Draw Bench와 11월 가동을 목표로 한 Peeled Bar 설비인 Peeling Machine은 세아특수강의 신 성장동력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충주2공장은 다양한 신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세아특수강이 글로벌 종합부품 소재기업으로 발돋움하는 첨병이 될 것입니다.	미래의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제가 입사한 2010년에는 세아특수강이 중장기 목표를 달성한 특별한 해였습니다. 이전까지 숨 가쁘게 달려오다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잠시 주춤하면서 새내기인 저에게는 매출액 5,000억 원이라는 목표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제 걱정을 보기 좋게 꺾어버리고 세아특수강은 당당히 매출액 5,000억 원이라는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고, 이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습니다. 앞으로 세아특수강의 사원으로 서 지금의 선배님들이 해왔듯이 미래의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세아특수강 2014년 1조 원 달성을 위하여 파이팅!!

새로운 이름과 변함없는 끈기로 글로벌 시장을 개척한다

세 아 엠 앤 에스 여수 공장

세아엠앤에스(SeAH M&S)의 M은 메탈(metal)을, S는 솔루션(solution)을 각각 의미한다. 새로운 이름으로 세아의 가족이 된 여수의 세아엠앤에스를 찾아 단단한 다짐과 뜨거운 열정을 만나고 왔다. 자원 전쟁의 시대에 철강그룹인 세아의 몰리브덴 사업에 날개를 달아줄 세아엠앤에스, 지금 만나러 갑니다.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 세아엠앤에스

세아엠앤에스는 전략적 광물사업 개발의 일환으로 2010년 12월, 세아의 새로운 가족이 됐다. 세아엠앤에스는 광양합금철이라는 이름으로 2006년 2월에 한국광물자원공사와의 합작사로 출발했으며, 수입한 몰리브덴 정광을 배소하여 산화몰리브덴, 페로몰리브덴, 산화몰리브덴 브리켓을 생산하고 있다. 몰리브덴은 고가의 금속으로 지구상에 많지 않은 희유금속으로 분류된다. 여수공장은 국내 유일의 배소로를 갖추고 단일 공장을 통해 브리켓, 페로몰리를 생산하고 있어 국제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여기서 생산된 제품은 주로 스테인레스강, 특수강, 반도체 등 제조산업에 필수 부원료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비철금속으로, 주요 고객사로는 POSCO, 현대제철, 세아베스틸, 일본 JFE 등이 있다.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는 세아엠앤에스에는 초창기 때부터 근무한 사람들이 오랜 경험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로, 특히 배소 부분에서는 각자가 전문적인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고 있다. 이와 동시에 현장 사원들의 평균 연령이 젊어지면서 패기 있고 열정적인 인적 구성으로 변화와 개선을 추구하는 진취적인 공장이다.

대내외적인 정비를 통해 뚝뚝 뭉칠 것

올해는 내적으로는 조직적인 단단함을 갖추고, 외적으로는 실질적인 이익을 창출하려 한다. 먼저 내실을 탄탄히 하기 위해 회사 내부의 업무 개선과 정확한 생산계획과 효율적 재고관리 등 효율성의 일환으로 전사적 자원관리(ERP)를 개발 중이다. 네트워크의 전산화로 의사결정 시간 단축과 결과 값을 한눈에 볼 수 있어 공장의 업무체계에 보다 효율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공장과 서울사무소 간의 업무 소통도 한층 더 개선되리라 기대한다.

INTERVIEW

“한 가지에 매진하면 길이 열린다”

작년 한 해는 세아엠앤에스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명을 변경하는 등 여수공장의 임직원이 새로운 도약의 발걸음을 내딛게 된 해였기 때문입니다. 비록 과거에 어려운 시기를 겪긴 했지만, 비운 뒤 굳어진 땅처럼 단단해진 세아엠앤에스가 숨을 고르고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세아의 가족이 되면서 제조업에 몸담고 있다는 인식이 뚜렷해졌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역동적이며 열정이 뛰어나지만 젊은 층이 많아 경험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늘 배우려는 자세가 있기에 곧 프로의식과 경험까지 겸비한 인재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40명가량의 식구들이라 서로 집안의 대소사가

또한 생산량 증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단한 노력의 결실로 배소로의 시간당 생산량이 가동 초기와 비교하여 약 10% 증량됐고, 페로몰리의 생산량도 약 2배가 증가되는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현재 국내 산화몰리브덴의 연간 수요량은 15,000t, 세아엠앤에스의 생산능력은 5,000t에 이른다. 진행 중인 설비증설 투자계획이 완료되면 10,000t까지 생산규모를 확대해 2013년 이후에는 국내 수요량의 약 2/3 이상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외국 건설팅사를 통하여 증설을 한창 검토 중에 있다. 장치산업의 특성상 생산량이 배가되면 고정비용 절감효과가 상승하여 회사의 이익 측면에서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항공우주 사업에도 사용되고 있는 고부가가치 제품인 레늄(Re)이 세아엠앤에스의 원재료에 포함되어 있어 부산물로 회수하는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중기적으로는 2017년까지 배소로 1기를 더 증설하고, 연간 20,000t까지 생산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장장을 중심으로 생산량 배가 운동과 설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오늘날 목표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꿈이 많은 회사’, ‘꿈을 이루는 공장’이 되고자 전 직원이 뚝뚝 뭉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세아엠앤에스
강영철 상무

지 다 알고 지내죠. 또한 틈날 때마다 스마트폰으로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관심을 공유하고 대화를 나눠요. 젊은 직원들과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나누고 의견을 주고받습니다. 광석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이전에 비해 캐나다의 광석 공급이 가능해지면서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늘 “한 가지에 매진하면 길이 열린다”라는 말을 믿습니다. 끈기와 전문성이 있다면 성공은 뒤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세아엠앤에스는 희소금속, 고부가가치 신소재 개발, 설비 증설을 통한 원가 경쟁력을 통해서 그룹 내 5대 회사로 성장할 커다란 목표를 달성하고자 전 임직원이 노력할 것입니다.

세아엠앤에스 여수공장

세아엠앤에스 여수공장

김서현 대리

공무팀. 현장의 개선점을
찾고 설비와 한 판 씨름을
하는 강철체력의 소유자.

조용권 PL

지원팀. 공장 내의 사소한
일까지 꼼꼼하게 챙기는
공장의 파수꾼.

오성균 선임

생산팀. 페로몰리Part의 뜨
거운 온도를 품질로써 제압
한다. 카리스마 넘치는
진정한 용자!

김주단

지원팀. 감쪽하고 귀여운
외모와 달리 점점 터프해지는
여수공장의 살림꾼.

김승모 대리

공무팀. 여수공장의
다재다능한 김가이버!

Fighting

강영철 상무

부드러운 카리스마의
소유자이자 공장의
총 지휘자.

황의선 선임

생산팀. 배소Part의
공정과 설비 개선에 땀을
쏟는 노력맨.

김순수 선임

생산팀. 브리켓Part의
생산량 증대에 영업맨 보다
더 열심인 열정맨.

신명균 대리

관리팀. 허허실실 자타공인
하회탈이지만 업무만큼은
엄격한 성실맨.

채종찬 팀장

생산팀. 여수공장
생산의 모든 것을
해결하는 해결사.

번개같이 나타나는 정의의 원더우먼

세아에샵

품질경영팀 과장

김영숙

최오리바람과 함께 나타나는 눈부신 미모의 전사가 있다. 반짝반짝 눈을 빛내며 정의를 수호하는 원더우먼처럼 세아에샵의 새로운 다크 호스, 업무는 물론 두 아이의 엄마 역할까지 완벽하게 해내겠다는 그는 세아가 원하는 21세기형 인재상임에 틀림없다.

여성 챌린지 리더 1호

신비로움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갖춘 김영숙 과장. 엿되어 보이는 외모와 달리 어느 덧 세아에서 11년차, 잔뼈가 굵은 베테랑이다. 김 과장의 업무는 세아에샵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제품에 대한 품질 개선과 시스템 유지, 제품 인증이다. 다시 말해 제품의 품질향상과 그에 대한 일련의 과정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시정하고 개선하는 일이다. 그의 끈기 있고 꾸준한 노력에 여성 챌린지 리더 1호가 됐다. 소감을 물으니 의외로 담담한 대답이 돌아왔다. “제가 챌린지 리더로 선발된 이유는 운이 좋아서라고 생각합니다. 고급 여성인력이 증가하고 있는 시대의 변화와 기업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인재풀까지 예측하고 준비하고 있는 세아그룹의 의지가 시기적으로 잘 맞물렸던 것 같아요.” 모두 열심히 노력하는데 자신만 챌린지 리더로 선발되어 오히려 동료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는 겸손한 대답에 진심이 묻어났다. 챌린지 리더이자, 올해 들어 기존 업무에 추가된 ASME QSC 인증 추진 TFT의 핵심 담당으로서 진행해야 할 업무에 더욱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조직을 구성하는 구성원 중에는 유난히 눈에 띄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묵묵하고 꾸준하게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다. 품질 개선과 인증 과정에서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신속히 처리되도록 기여하고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는 김영숙 과장.

그는 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해결·개선하는 것에 폭 빠져있다. “문제가 생기는 데에는 원인이 늘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왜 안 되는지 원인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시스템 때문일 수도 있고, 사람 간의 공조가 잘 되지 않아서일 수도 있죠. 문제는 항상 숨어 있어요. 드러내서 꺼내야 다음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거나 개선해 나갈 수 있기에 두려워해서는 안돼요.”

세아의 필요한 인재로 인정을 받은 만큼 업무는 물론 아직 어린 두 아이의 엄마 역할까지 잘 해내겠다는 새로운 포부를 다진다.

새로운 인재상이 되기 위해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고 했다. 김 과장은 높이 나는 법을 인문학에서 찾는다. “세계 0.1% 부자와 리더의 바탕에는 인문고전 독서가 있다고 합니다. 올 초에 방영된 하버드대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 그리고 EBS 평생대학에서 박재희 교수의 인문고전 강의를 들으면서 인문고전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꾸준한 독서와 공부로



기본소양을 다지며 전문적인 지식 또한 넓혀간다면 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회사와 가정을 둘 다 이끌어 가기에 개인적인 시간이 많이 부족하지만 틈틈이 잠을 내어 독서를 하거나 다큐멘터리와 같은 TV 프로그램을 챙겨본다. 가끔씩 떠나는 출장길에도 책을 꼭 챙긴다.

김영숙 과장이 요즘 몰두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이냐 하는데 있다. 교수를 가르치는 교수로 유명한 조벽 교수는 “21세기 글로벌 인재상은 전문성, 창의성, 인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말한다. “전문성은 두 말할 필요도 없고, 창의성은 혁신(innovation)과 연관해 생각할 수 있죠. 인성은 협업을 의미합니다. 21세기 글로벌 인재상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도전이 필요하겠죠.”

남은 2011년은 그에게 또 다른 도전의 해이다. 업무는 물론, 개인적인 목표와 챌린지 리더 교육, 육아를 조화롭게 이끌어 나가야 할 바쁜 해이지만 도전할 거리가 많은 만큼 즐거운 비명을 지를 수 있기 때문이다.

Profile

이름 | 김영숙
 별명 | 없음
 좋아하는 것 | 여행(평생), 독서, 다큐멘터리, 등산
 싫어하는 것 | 남편의 프로야구 시청, TV연예프로그램
 좌우명 | 겸손(謙遜).
 덕을 갖춘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자.

힘이 되는 다섯 가지

WOW!



1. 우리 가족
 귀염둥이 두 아들 그리고 멋진 남편이
 있기에 항상 힘이 납니다.



2. 주변 사람들(친인척, 동료, 친구)
 저를 응원해주고 도와주시는 모든 분들.



3. 여행
 여행지에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항상 다음 여행지에 대한 목표를
 세울 정도로 여행을 좋아합니다.



4. 책
 언제나 배움과 사고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소중한 친구입니다.



5. 작업복
 작업복만 입으면 저절로 활기가
 생깁니다.

세아 힘입니다

바닷길을 지나는 선박
 육로를 달리는 자동차
 우주를 넘나드는 우주선
 시원한 여름을 보내게 하는 냉장고
 전 세계에 세아의 이름을 떨치는
 제품들은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세아의 전부는 아닙니다.
 사람을 키우고
 인재를 육성하는 기업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세아'입니다.



세아베스틸 낭만파
3인이 모였다

대학로
100배 즐기기

영업지원팀 젠틀맨
한주식 과장
책임감이 강해
무슨 일이든 끝까지
마무리가 완벽하다.



영업1팀 순수남
문중환 과장
강한 집중력으로 한 번
도전한 것에 대해 포기를
모른다.



수출팀 짐승남
김승철 과장
사람 좋은 인상 뒤에 저돌적
인 면모를 가지고 있다.



아련한 대학시절을 떠올리며 마로니에
공원을 걷는다. 대학로 뒷길, 낙산공원.

길도 사람도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마
음은 이팔청춘인 세아베스틸의 낭만파가
대학로를 찾았다. 학창시절 친구들과 막
걸리를 마시며 달리던 그 길을 이제는 넥
타이를 매고 찾아왔지만, 걸음걸음 옛 생
각에 절로 웃음이 난다.

로맨틱 해화동 블루스

“어릴 적 함께 뛰놀던 골목길에서 만나자하네. 내일이면 아주 멀리 간다고. 덜컥거리는 전철을 타고 찾아가는 그길.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잊고 살아가는지...” 동물원의 노래 〈해화동〉가사처럼 옛 기억을 더듬으며 찾아오는 그 길. 세아베스틸에 낭만파 중년 3인조가 있으니, 수출팀의 마도로스 김승철 과장, 영업지원팀의 꽃 한주식 과장, 그리고 영업1팀의 분위기메이커 문중환 과장이 그들이다.

업무를 위해 불철주야 시간을 아끼지 않고 노력하는 그들이지만, 오늘은 조금 특별한 날이다.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달콤한 휴식을 맛보는 시간, 대학로를 걸으며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회사동료가 아니라 학창시절의 친구처럼 느껴진다.

“대학로를 걸어보니 대학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요. 전 대학로에 자주 오지 않아선지 오랜만의 이 동네가 정말 좋네요.” 결혼 전 지금의 아내와 함께 길거리 공연을 보러 자주 왔었다는 문중환 과장은 연애했을 때 생각이 나는지 빙그레 웃는다.

“지금이야 분위기 좋은 곳에 가서 음식도 먹고, 술도 한 잔하지만 학생 때는 돈이 넉넉지 않았으니까 안주도 없이 늘 막걸리만 마셔도 좋았어요. 음악도 많이 들었지.”

“〈전영혁의 24시〉 알아? 나중에 〈음악세계〉로 바뀌었잖아.”

“난 전설의 〈별이 빛나는 밤에〉애청자였다고. ‘별밤’이 전설이지, 하하.”

친한 친구 셋이 모여선지, 대학로가 이렇게 만드느니 옛날 듣던 라디오 얘기에 푹 빠진다.

“일을 하고, 가정을 꾸리면 아무래도 시간이 점점 줄어들죠. 마음은 항상 오고 싶어도 대학로에 자주 올 기회가 없어요. 예전에는 몰랐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저녁시간의 활기찬 대학로만의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골목 사이사이 잘 찾으면 고즈넉함을 느낄 수도 있고...”

멋지게 차려입은 세 사람을 배려해 대학로에서 유명한 파스타 전문점 <에브리데이 파스타>를 찾았다. 창조아트홀 5층에 자리한 <에브리데이 파스타>는 대학로가 한눈에 들어오는 전망과 은은한 조명으로 데이트 코스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 “아~ 오늘 우리가 ‘환상의 커플’이네. 분위기 좋아” 한 과장이 껄껄 웃으며 말하자, 김 과장과 문 과장은 어깨동무를 한다. “우리 수영커플이잖아. 수영으로 맺어진 커플!” 무엇이든 한 번 시작하면 끈기가 있어 끝까지 한다는 문 과장은 여전히 수영마니아. 말수가 별로 없고 침착한 모습을 보면 세아를 첫 직장으로 16년간 근무한 사실도 이해가 된다. “저하고 한 과장도 세아베스틸에서 근무한 지 어느덧 4~5년이 되어가네요. 처음에 문 과장님이 많이 도와줬죠. 나이도 비슷하고 또 말도 잘 통하는 사람 찾기가 어디 쉬운가요?” 한눈에 봐도 외모, 성격, 키 어느 하나 닮은 점이 없지만 오히려 다르기에 더욱 조화가 잘 되는 세 사람이다.



로맨틱 코미디, 여자만 보란 법 있나요?

중년의 남자 셋이 보기엔 다소 새콤달콤한 로맨틱 코미디 뮤지컬인데, 선택한 이 유가 궁금해 물어보니 “<환상의 커플>. 제목이 좋잖아요”라는 문 과장의 간단한 대답이 돌아온다. “뭐야? 그런 거였어? 난 또 드라마를 본 줄 알았지!” 다행인지 불행인지 정작 세 사람 중에 인기 드라마 <환상의 커플>을 본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기대 반, 걱정 반 설레는 마음을 안고 극장 안으로 들어갔다. 곧 암전이 되고 신나는 음악에 맞춰 배우들이 까도녀(‘까칠한 도시 여자’의 준말) 나상실의 등장을 알리는 춤을 추고, 세 사람은 서서히 뮤지컬 속으로 빠져들었다. 뮤지컬 <환상의 커플>은 드라마를 뮤지컬로 만든 최초의 작품이다. 원작은 요즘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최고의 사랑> 대본을 쓴 홍자매(홍정은, 홍미란) 작가다. 드라마 <환상의 커플>을 뮤지컬로 각색해, 더욱 톡톡 튀는 캐릭터와 대사로 스피드하고 통쾌한 로맨틱 코미디를 선사한다.

오만하고 건방진 재벌 상속녀 ‘안나 조’와 뽀뽀하고 단순한 ‘장철수’. 만날 일조차 없을 것 같은 두 남녀가 서로 맞부딪치며 일어나는 황당한 사건들. 그 둘을 이어주는 건 여주인공이라면 누구나 걸린다는 기억상실증이다. 기억상실증에 걸린 그녀를 보살피고 감싸주는 커닝 이 기회를 틈타 안나 조를 이용해 집안일이나 털어볼까 하는 장철수, 좌충우돌 에피소드를 지켜보며 한바탕 웃음을 터트리는 사이, 그들 사이에 모락모락 피어나는 사랑에 가슴 따뜻해지는 뮤지컬 한 편이다. 남자 셋과 대학로의 밤은 그렇게 깊어만 갔다.



일상탈출! 나상실을 따라서 GO, GO!

세아베스틸 수출팀 김승철 과장

“꼬리치하고는~!”이라는 대사를 필두로 선풍적인 인기몰이를 했던 드라마 <환상의 커플>이 뮤지컬로 돌아왔다. 톡톡 튀는 명대사의 향연과 발랄하고 코믹한 재미로 가득한 안하무인녀와 무대뽀남의 막상막하의 코미디 대결이 펼쳐졌다.

극장과 무대가 적절히 어우러져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았다. 티켓의 가격은 서로 다르지만 관객들 좌석에 큰 차등을 두지 않아 더욱 대학로답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아무래도 오프닝이 아닌가 한다. 주인공 ‘나상실’의 까다롭고 유별난 성격을 부각시키는 ‘사모님 송’은 노래나 안무 면에서 화려해 재미가 있었다.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드라마지만 난 사실 한예슬, 오지호 주연의 <환상의 커플>을 보지 않았다. 그래서 드라마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드라마라는 장르 특성상 오밀조밀하고 탄탄하게 짜인 스토리를 뮤지컬의 100분에 담아내기 어려웠던 것 같았다. 드라마에서 주요 사건들을 가져와서 구성을 한 만큼 스토리 전개가 매끄럽지 못했던 점이 조금 아쉽다.

그러나 도저히 어울리지 않은 두 남녀가 서로 맞부딪치며 벌어지는 환장할 스토리는 다이내믹한 연출과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며 드라마의 주요 장면 하나 하나를 엮어 결국은 어울리지 않던 이들을 환상의 커플로 재탄생하는 엔딩을 연출한다.

뮤지컬 경험도 없는 유명스타를 앞세운 대형 상업적 뮤지컬과 달리, 전문 뮤지컬 배우들이 열정을 다해 표현하는 연기와 춤 동작 하나하나가 새로운 감동과 재미를 선사했다.

진부한 상황을 독특한 캐릭터를 이용하여 새롭게 풀어가는 뮤지컬 <환상의 커플>, 일상의 무기력함과 진부함에 빠져 죽 처지기 쉬운 한여름의 당신에게 적극 추천한다!



역사책 좀 챙겨줘요~

한국번디 광주공장 혁신파트 조순종

조선시대로 간다니 위기일까? 기회일까? 어쨌게든 시대에 적응해야지. 먼저 변장부터 하고, 예언을 해서 많은 돈을 벌겠다. 역사책 지참이 필수여야 하겠지만. 그러나 정계 진출은 하지 않을 것이다. 어차피 당파 싸움에 휘말릴 텐데 죽기를 자처하는 꼴이 아닌가. 그리고 여성 우대 정책을 펴고, 역사에도 길이 남을 근심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꿈의 마을을 건설하고 싶다. 그런데 현대로 복귀는 어떻게 하지?



황진이를 한 번만 만나봤으면!

세아 ESAB 경영혁신사무국 김인영

고을의 총각들이 상사병에 걸려 죽을 만큼 빼어난 미모를 가진 황진이를 한 번 보고 싶다. 얼마나 예쁘기에 조선시대를 알각 뒤집어 놓았는지도 정말 궁금하다. 지속선사 스님 30년 수행을 무너뜨리고, 서경덕과 일화로도 유명한 황진이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마음이 설렌다.



천재들과 교류하는 신선같은 생활

강남도시가스 경영관리팀 손성영

이왕이면 18세기의 조선이었으면 좋겠다. 한국 문화의 르네상스 시대라고 불릴 만큼 예술, 종교, 사상 등 모든 분야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생동감이 넘치던 시대였기 때문이다. 짬을 내어 안견의 몽유도원도를 직접 본다면! 당시 각 분야의 천재들과 교류하며 그들이 좀 더 다양한 생각과 조선을 위하여 고민하도록 돕고도 싶다. 내가 18세기 조선에 떨어진다면 어쩌면 지금 우리나라는 문화강국이 되어있지 않을까 하는 즐거운 상상을 해 본다.



내가 만약 조선시대로 간다면? 생생 Talk, 생생 Action

세아가족들의 생생하고 톡톡 튀는 생각들을 들어보는 시간. 과거로의 타임머신 여행을 떠나보자. 세아인들의 즐거운 상상 속으로 떠나 봅시다!

하루도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치지 못하는 당신.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뜨자마자 트위터 어플을 터치해 친구들의 아침인사를 받고, YTN 뉴스로 세계 곳곳의 뉴스를 확인하고, 아침식사는 즉석요리를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어야 '아~ 이런 게 행복이구나!'하는 편안한 마음이 든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조선시대에 툭! 하고 떨어졌다. 최첨단 지식을 이용해 내가 먼저 측우기를 만들어버려? 그것도 아니면 고등학교 때 죽기살기로 달달 외웠던 역사지식을 활용해 정권으로 진출할까? 그것도 아니면 신분제도를 허물어 버릴까?

분식으로 사람을 홀린다?!

세아특수강 구매팀 박서원

옷차림이나, 머리 모양 때문에 잡혀가면, 일단 미래에서 온 신이라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한두 가지 말해준다. 두려움과 신비로움을 풍기며 왕에게 데려가 달라고 요청한다. 그리고 역사 지식을 총동원하여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한 달에 하나씩만 말해주면서 내 말에만 귀 기울이도록 할 것이다. 왕의 총애를 받게 되면 분명 시기하는 세력도 있을 터. 그들에게는 라볶이, 고구마 맛탕, 팔빙수 등을 해주며 날 미워할 수 없게 만들어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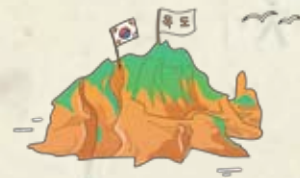


자나 깨나 독도는 우리 땅!

세아로지스 군산운영팀

최재환 대리

울곡 이이 선생의 10만 대군 양병설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조선에 선진 문화를 전파하여 임진왜란을 막은 후 역공으로 일본을 점령하고 모든 역사서와 지도에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표기한다. 그리고 전쟁이 아닌 문화로 대륙을 통일하겠다. 물론 돌아갈 것을 대비하여 그 시대 보물과 명화 몇 점 정도는 은밀하게 보관했다가 현 시대로 돌아와 꼭 불우이웃돕기에 쓰겠다. 이 정도면 광화문에 이순신 동상이 아닌 내 동상 하나 정도는 생기지 않을까?



내가 바로 의적, 정종훈이다

세아 E&T 경영지원팀 정종훈 Part Leader

내가 조선시대에 떨어진다면 그다지 즐겁지는 않을 것 같다. 편리한 문명에 흠뻑 젖어있는 내가, 헉! 무섭다. 하지만 재미있는 상상을 해본다면? 먼저 기동성 향상 차원에서 날씬하고 튼튼한 준마를 한 필 구입한다. 지식과 지혜를 총동원하여 부당축재한 양반들의 재산을 모두 회수해 가난하고 불쌍한 백성들에게 나눠줘야지. 그런데 가만, 이건 홍길동 얘기잖아?



천하통일은 나의 꿈!

세아 E&T 산업기기부문 영업팀 김효준

역사부터 바꾸고 싶다. 최신 무기제조 기술을 습득하여 조선시대로 가서 최신 무기를 만들겠다. 왕의 신임을 얻어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에 올라 정치부터 군사까지 개혁을 단행하는 거다. 모든 군사들에게 최신 무기를 보급하여 중국과 일본을 우리나라의 지배하에 둔다. 계속 국방력을 강화하여 영토를 확장하고, 콜럼버스보다 먼저 신대륙을 발견하여 아메리카까지도 우리의 영역으로 만들어 전 세계를 하나로 통일하겠다. 생각만 해도 신이 난다.



민주주의가 최고지~

세아 E&T 산업기기부문 생산팀 한 번

조선시대 초기의 왕이 되어 민주주의로 바꿔 첫 대통령이 되겠다. 임기기간 동안 전 시대에 잃었던 북방 영토를 회복하는데 힘을 것이다. 그리고 과학 전문 기구를 만들어 세계 최초로 우주인을 탄생시키고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까지 영토를 넓힐 것이다.



한 국 번 디 기 술 연 구 소 연 구 3 팀

육지의 외도, 피나클랜드 나들이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 바람, 나무, 햇살과 만난다. 넓은 평야와 멋진 풍광 아래 평택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팀워크를 가진 한국번디 기술연구소 연구3팀의 함성이, 웃음소리가 물보라처럼 퍼져나간다. 엔돌핀을 가득 안고 돌아간 그들의 행복한 산책길을 함께 걷는다.



바람, 물, 빛을 만나다

한국번디는 소형 스틸튜브 산업을 선도해 냉장고, 에어컨 등 백색가전 제품의 콘텐츠,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연료관에 사용되는 일중권 및 이중관 강관을 생산해왔다. 기술연구소 3팀은 그 중에서도 공정기술 개발을 담당하는 팀으로, 조립 가공, 부품 개발은 물론 해외 공장투자 뿐만 아니라 기술 지원, 설비 투자까지 담당하는 한국번디의 마당발이다.

1년 중 가장 바쁘고 중요한 시기, 어렵게 시간을 낸 연구3팀. 총 7명이지만 그중 이현철 사우는 다음 날 있을 결혼식 때문에 참여할 수 없었다. 그의 빈자리에 아쉬운 마음을 달래며 6명의 팀원이 나들이에 나섰다.

피나클랜드는 황량하게 버려진 채석장을 10여 년의 준비를 거쳐 다시 가꾸어 바람, 물, 빛을 주제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피나클은 산의 최정상이라는 뜻으로 주제별로 나누어진 특색 있는 각각의 정원들과 산책로로 이름나 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많은 꽃과 나무들을 보며 천천히 걸음을 옮기는 시간.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 맑은 공기와 나무들을 만나 가슴 깊이 숨을 들이쉬다. 울창한 숲을 지나면 만개한 꽃과 푸르른 나무가 여름의 문을 연다. 빨갛게 익은 조그마한 열매를 발견한 공승찬 사우가 “어? 이거 앵두 아니예요?”하고 묻는다. 앵두냐, 아니냐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정은호 대리가 한 마디 한다. “앵두나무예요. 여기 써져 있네”, “먹어볼까요?” 신석호 대리가 사슴 같은 눈을 반짝이며 냉큼 열매를 따서 먹어본다. 어린 시절, 들이며 산에서 놀러 다니던 때가 생각난다며 짓는 맑은 미소에 보는 이마저 덩달아 웃게 된다.



“산길따라 물길따라
초록빛 나들이를 떠나요!”





아 산 만 과 서 해 대 교 가 한 눈 에

각종 수상 식물과 풍경소리가 어우러진 다리를 건너 정원을 내려다본다. 아름다운 경치와 청아한 풍경소리에 취해 잠시 걸음을 멈춘다. 아름다운 조형물이 화장실 옥상이라니 아이러니하다.

조금 더 걸어 정상에 오르면 높다랗게 조성된 폭포를 만난다. 째깍한 햇빛을 머리맡에 두고 올라와선지 폭포소리가 더욱 반갑다. 팔뚝만한 물고기들이 일행을 반긴다. 심재평 팀장이 물고기를 보니 문득 떠오른 듯 한마디 한다. “끔직한 게 참 맛있겠네. 허허. 낚시는 우리 정 대리가 잘 하는데 말이야.”

커다란 정원은 물론 정상에 오르면 시원하게 펼쳐진 평야 너머 아산만과 서해대교까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곳에서 평택 사나이들의 팔씨름이 시작됐다. “촬영이라고 대충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할 거예요.” 3팀의 젊은 피 두 사람, 막내 이병용 사우와 공승찬 사우가 서로 손을 내밀었다. 정은호 대리가 얼른 막내 어깨를 주물러 준다. “병용아, 무조건 이겨!” 허무한 한 판. 공은찬 사우가 너무나 쉽게 이겼다. 막내의 설욕을 위해 단단한 팔뚝을 가진 정은호 대리가 나섰다. “자, 힘 빼시고~” 힘센 정 대리를 이기기엔 역부족이다. 한바탕 웃음이 터지고 설욕전은 끝이 났다.

내 손으로 직접 만드는 부채와 비누

전망대에서 내려오는 길은 완만했다. 지나는 길목마다 오밀조밀 크고작은 테마의 정원이 있다. 인디언 마을의 뿔족하게 솟은 티피 하우스텐트를 보고 재미있는 포즈를 취해달라고 했더니 심재평 팀장이 제일 먼저 쥘베를 두드리는 시늉을 한다. 익살스런 표정과 재치에 팀원들도 스스럼없이 어울리는 모습이 마냥 밝다.

썸머라일락 길 아래 자리한 체험장을 찾았다. 옆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재즈와 부서지는 햇살이 반짝인다. 바람이 지나가며 나뭇잎을 머리위로 떨어뜨리는 이 여름. 나무그늘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조물조물 만들기를 시작했다.

허브비누와 들꽃압화 부채 만들기, 두 가지로 나누어 체험을 했다. 먼저 비누 만들기 팀. 똑같은 재료로도 세 사람 만드는 모양이 제 각각이다. 링 모양으로 요리조리 엮어 신기한 비누를 만들고 있는 막내 이병용 사우에게 이정일 대리가 장난 어린 핀잔을 준다. “장식이 아니라 비누다. 실용성이 있어야지~” 이병용 사우는 재치 있게 받아친다. “안 쓸려고요. 만약에 쓰려면 끊어서 써야 돼요.” 반면 정 대리는 무식팔을 자랑하듯 척척 만들어 낸다. “정 대리, 비누 만들기 자격증 있는 거 아니야? 전문가가 따로 없어.” 숙성된 재료와 천연색소로 만들어진 반죽으로 비누를 빚는 품이 전문가 빠진다.



부채 만들기 팀은 마른 꽃이 부서질 세라 조심조심 부채에 장식을 한다. 눈썰미 좋은 이정일 대리가 입구에 들어설 때 본 꽃이라며 아는 체를 한다. “우리 무슨 무형문화재들 같네요. 하하!” 서로 칭찬을 주고받으며 열중해서 만들기를 하는 모습에 팀워크가 엿보인다. 하물며 소소한 만들기에도 이렇듯 심혈을 기울이고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에 평소 팀 내 분위기를 엿볼 수 있었다.

“푸근한 인상의 소유자이신 저희 팀장님은 의외로 엄격하고 공과 사의 구분이 뚜렷하신 분이예요. 그렇지만 저희가 기죽을까봐 따뜻한 말씀으로 용기를 주시죠.” 이병용 사우의 말 속에 팀장님에 대한 존경심이 느껴진다. 나들이를 마치고 다음 날 있을 이현철 사우의 결혼식을 위해 함께 양산으로 내려간다는 그들의 뒷모습에 뜨겁고 붉은 석양이 물들어 간다.



피나클랜드

육지의 외도라 불리는 테마파크 피나클랜드는 자연을 느끼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정원으로 유명하다. 각종 체험은 물론 여름에는 물 놀이, 겨울에는 눈썰매를 즐길 수 있어 가족 나들이 장소로도 각광받고 있다.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월선리 346-2번지

문의 041)341-2580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

2011년 장학증서 수여식

5월 17일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은 2011년 새롭게 선발한 19기 대학교 장학생들에 대한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전국 14개 대학에서 90여 명의 학생들이 지원한 가운데, 올해는 총 28명을 선발함으로써 예년 평균보다 다소 늘어난 규모를 보였다.

글 ●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 임이랑

19기 장학생 선발을 위해 3월 21일 서류접수 시작과 함께 전국 5개 대학에서 설명회가 진행됐다. 서류와 개별 면접 심사를 거쳐서 최종 선발된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의 장학생들에게는 연간 800만 원의 장학금을 2년간 지급하게 된다. 한편, 각 지역에서 선발된 22명의 고등학교 장학생들에게도 그룹사의 해당 지역 사업장을 통해 장학증서가 전달됐다. 고등학교 장학생은 학교장으로부터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을 추천받아 선발됐다. 고등학교 장학생들에게는 2년간 학비 전액을 지원한다.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은 기존 장학생을 포함 대학생 46명, 고등학생 58명 등 올 한 해 총 104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단위 : 천 원]

사업명	내용 및 수혜인원	사업금액
장학금 지원	중·고등학생 / 635명	939,210
	대학생 / 614명	2,454,897
	대학원생 / 64명	226,385
	유학생 / 15명	114,603
	소 계 / 1,328명	3,735,095
학술연구비 지원	학술연구단체 연구비 지원	1,347,524
도서 지원	도서 지원	206,792
장학생 수련회 지원	교육 관련 수련회 개최	103,844
세아해암학술상 시상	학술 연구상 시상	40,484
	합 계	5,433,739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 사업실적 현황
(1993년~2011년 5월 현재)



이운형 재단이사장은 새로운 19기 장학생들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을 기쁘고도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소감을 밝히며 간단한 세아그룹의 소개와 함께 당부의 메시지를 전했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 현실에서 세계시장의 치열한 경쟁을 딛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기업활동을 설명하면서, 19기 장학생들이 향후 가져야 할 마음가짐으로 세계 무대에서 일할 수 있는 세계인으로서의 포부와 안목을 가진 글로벌 마인드를 꼽았다. 재단의 장학생들이 그러한 글로벌 마인드를 높이며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이끌어갈 인재로 성장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였다.

“항상 전진하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이 하나하나 모여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명실공히 선진국이 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운형 재단이사장

나를 변화시켜줄 천금같은 기회

매 학기 장학금을 타기 위해 도서관에서 밤새고 공부하던 날들, 듣고 싶은 강의가 있어도 학점을 위해, 장학금을 위해 듣지 못한 아쉬움, 그리고 항상 장학금을 받아야 한다는 압박관념이 지난 1년 동안 계속되다 보니 몸도 마음도 지칠 무렵이었습니다. 과연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것인가? 의문이 계속 이어지던 중, 장학생 선발 공지를 보았습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지원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세아의 장학생으로 선발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게 꼭 필요한 것이고, 자신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멋진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운 좋게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5월 17일, 다른 27명의 장학생들과 한 자리에 모여 장학증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면접 날도 아니고 단지 장학증서를 받으러 온 것뿐이었지만, 이런 자리가 처음이어서 긴장이 많이 됐습니다. 긴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운형 이사님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글로벌 인재가 되라는 것이었는데, 정말 마음속에 와 닿는 말이었습니다. 그 동안 좋은 학점을 받기 위해 기계같이 공부하던 시절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런 식의 공부가 아니라 이 제부려는 저를 위해, 다양한 재능을 갖춘 글로벌 인재가 되도록 해보자 다짐했습니다. 27명의 19기 동기들이 각자 다른 꿈을 꾸고 있었지만, 그들은 모두 글로벌 인재가 되어 사회에 공헌하겠다는 공통점이 있을 것입니다. 짧지만 길수도 있는 약 2년의 시간 동안 27명의 19기 동기들이 진정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이를 통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런 기회를 만들어준 세아해암학술 장학재단에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2011년 19기 장학생 대표
성균관대 신소재공학부 태윤섭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

상반기
교육기관
지원사업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은 주 목적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국내외 교육기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상반기 중학교 도서지원을 실시했다. 아울러 서울 중부교육청과 함께 하는 교육투자 지원사업으로 올해는 새롭게 서울대 사범대학 부설 초등학교의 특성화 과제를 지원하게 됐다.

중학교
도서지원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에서는 2011년 상반기 도서지원 활동으로 포항, 울산, 충주, 창원, 군산 등 8개 중학교에 약 1200만 원 상당의 도서를 전달했다. 이번에 지원한 도서는 청소년들의 학습능력 개발과 정서 함양에 유익한 교양 도서들로 선정하여 그룹사의 해당지역 사업장을 통해 각 학교에 전달했다.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은 1996년부터 어린 학생들의 창의력 개발과 가치관 정립, 정서함양에 유익한 도서들을 선정하여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지원하는 사업을 펴왔다. 매회 전국 6~8개 정도의 초등학교를 선정하여 지원하다가 2009년부터는 중학교를 대상으로 도서를 지원하고 있다. 2011년 상반기까지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이 전국 학교에 지급한 도서지원 총 누적금액은 약 2억1200만 원 규모에 이른다.

초등학교 유일의
마칭밴드 후원

서울 중부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2011학년도 장학재단과 함께하는 공익재단 교육투자 지원사업’에 매년 참여해온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은 올해 새롭게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초등학교(이하 서울사대부설초)의 특성화 과제인 마칭밴드를 후원하게 됐다.

교육투자 지원사업이란 서울 중부지역 내의 장학재단과 학교가 1:1로 연계하여 학교가 목표한 특성화 과제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중부교육청은 2007년부터 이러한 교육투자 지원사업을 시작하여 올해 5회째를 맞이했다. 2008년 2회 때부터 참여한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은 2~3회 때 추진되었던 신광여자중학교의 독서 생활화에 매회 500만 원, 4회 남산초등학교 영재교육에 5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서울사대부설초는 특성화 과제로 ‘마칭밴드 악기군별 전문적인 지도를 통한 공연 능력 향상’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재단에서는 악기 구입비 2백만 원과 여름캠프 운영비 1백만 원 등 총 3백만 원을 지원했다. 서울사대부설초의 마칭밴드는 서울 시내 초등학교 중 유일한 청소년 밴드 단체로, 4월 13일 입단식을 열고 정식 출범했다. “악기는 혼자 배울 수 있는 것이지만, 혼자 연주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어 함께 연주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하는 데에 더 큰 가치가 있음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다”며 전학도 교장은 입단식 개최 소감을 전했다.

미국의 4~50년대 전쟁의 시름 속에서 국민들의 사기를 높이고 활기를 던져주었던 마칭밴드의 역사와 전통이 정식 청소년 단체로 자리 잡게 된 서울사대부설초의 마칭밴드로 이어져 많은 이들에게 음악을 통한 감동과 희망을 선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꿈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

안녕하세요, 저는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에서 기증해주신 책을 받은 창원남중학교 ‘이효진’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책을 보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도 기증받은 책을 읽으며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하고 지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신 재단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 ‘국기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신봉승씨가 쓴 작품입니다. 저 또한 국사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책을 읽으며 공감할 수 있었고, 조금 어려운 책 같아 보였지만 무난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지식인들의 역사에 대한 무지를 비판하고, 지식인들이 실현해야 할 리더십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꿈 중 한 가지는 정치가입니다. 지금의 정치인들과 지식인들도 이 책을 읽고 반성하고, 틀린 점을 적극적으로 개혁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 학교에서 정치가가 되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면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이 기증해 주신 책을 읽고 그 책을 마음에 품으며 자신들의 꿈을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책을 우리 학교에 기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원남중학교 이효진

SeAH NEWS

2011
MAY+JUNE
VOL. 333

» Group News

日 호리바 마사오 최고 고문단 방문



4월 20일 일본 글로벌 계측기기 전문 기업 호리바의 창업자 호리바 마사오 최고 고문단이 본사를 방문했다. 호리바는 1991~2002년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라 일컫는 산업 불황기에 고속 성장을 일구어 글로벌 시장을 종횡무진 해온 교토식 경영의 대표적인 기업이다. 호리바 마사오 최고 고문은 이날 세아와 호리바가 추구하는 기업문화의 공통점으로 종업원들의 웃는 얼굴과 신뢰 높은 기업 이미지를 꼽으면서, 호리바가 글로벌 경쟁력을 창출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한 즐거움과 엉뚱함의 기업문화를 소개했다. 한편, 최근 일본 동북부를 덮친 쓰나미 피해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처 상황을 기업 경영에 비유하면서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위해 최고 경영자가 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2011년 상반기 공채 설명회 개최



4월 25일부터 5월 3일 인하대학교를 시작으로 전국 주요 6개 대학교에서 세아그룹 2011년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을 위한 설명회가 개최됐다. 설명회에는 약

1,000여 명의 대학생들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상반기 공개 채용은 세아제강, 세아베스틸, 한국반디, 세아에스, 세아로지스, 강남도시가스 등 총 6개사가 참여한 약 40명의 모집 규모로 진행됐으며, 서류전형에서 총 3,400여명이 지원하여 85: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최종 합격자들은 6월 21일부터 8박9일 일정으로 가평 교원비전센터에서 집합교육을 받게 된다.

» 세아제강

포항공장 안상렬 과장, 지식경제부 장관 표창 수상



포항공장 안상렬 과장이 6월 9일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제12회 철의 날 시상식에서 지식경제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1996년 입사 후 품질보증팀, 기술연구소를 거쳐 현재 생산팀의 단위공장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안상렬 과장은 ERW와 SRM 후속화의 조기 안정화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생산능력 확대는 물론, 수입품 대체 등 철강 신수요 개발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에 이르렀다.

SRM 하이브리드 이중관 개발

세아제강에서는 내면에 이중 금속을 결합한 SRM 하이브리드 이중관을 새롭게 개발했다. 최근 에너지 수요 증대에 따른 석유, 가스 및 화학 물질의 수송량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환경에서 강관 부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스테인리스나 동 등 다른 금속과 고 탄소강을 결합해 고온고압의 환경에서도 우수한 내성과 내식성을 갖춘 제품을 개발했다. 이 신제품은 기존 스테인리스 강관 대비 원가가 저렴하고, 내관 소재 변경이 가능하여 향후 수도용, 화학용, 플랜트용 배관재로도 용도를 확대할 수 있다.

12회 철의 날 마라톤 대회 참가



한국철강협회에서 주최한 '제12회 철의 날 기념 철강사랑 마라톤 대회'가 5월 28일 미사리 조정경기장에서 개최됐다. 철강사랑 마라톤 대회는 매년 철의 날 즈음하여 전 국민에게 철강산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철강 가족들의 단합과 화합을 위해 개최되는 행사이다. 세아제강은

올해 총 196명이 참가하여 철강산업 발전을 위한 단합을 도모했다.

포항공장, 노동조합설립 기념 체육대회 개최



포항공장은 4월 11일 노동조합 설립 37주년을 기념하여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노동조합 정연철 위원장의 개회사와 하재우 대표의 축사를 시작으로 대

회는 축구, 배구, 족구, 윷놀이, 응원전 등 다섯 종목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전통적인 놀이에 초점을 맞추어 색다른 분위기를 조성하여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판재사업부, #2CCL 공장 안전기원제 개최



4월 26일 군산공장에서는 새로 준공한 #2CCL의 본격적인 가동을 기념하여 안전기원제를 개최했다. #2CCL을 통해서 연간 6만t에 달하는 광폭 알루미늄

컬러강판과 가전 및 고급 전자재용 컬러강판 등 고부가가치 판재 생산이 가능해짐에 따라 세아제강은 기존 연 15t의 생산능력을 갖춘 #1CCL과 더불어 연간 총 21만t의 판재제품 생산이 가능해졌다.

군산공장, 자주보전 5스텝 프로세스 총 점검 교육 실시

2007년부터 TPM 활동을 시작한 군산공장은 자주보전 4스텝 설비 점검을 완료하고 5월부터 자주보전 5스텝 프로세스 총 점검 교육을 실시한다. 이 교육은 2012년 말까지 시행되며 이 기간 중 매뉴얼 작업도 병행된다. 혁신팀에서는 이번에 작성되는 5스텝 매뉴얼을 토대로 2차 실행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 세아베스틸

새봄맞이 5S 활동 실시

3월 14일에서 4월 8일까지 26일 동안 세아베스틸 모든 공장에서는 새봄맞이 5S 활동이 실시됐다. 생산 증가에 따른 빠듯한 현장 스케줄로 인해 청소 및 정리정돈이 미흡했던 점을 반영하여 소그룹들은 TPM 시간을 활용하여 5S 활동을 추진했다. 소그룹별 담당 구역과 설비뿐 아니라 자재창고, 안전통로, 구석 구석을 청소하고 정리정돈 하는 이번 활동 결과를 반영하여 1분기 우수 소그룹을 선정하기도 했다.

신입사원 품질경영 기본과정 실시

세아베스틸은 4월 13~15일 사무기술직 신입사원 39명을 대상으로 변산대명리조트에서 품질경영 기본과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세아베스틸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배양하고, 자신의 역할을 완수하는 적극적인 자세 확립은 물론, 품질경영 실천을 위한 기본 마인드와 도구를 이해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교육에 참여한 신입사원들은 "품질경영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는 토대가 됐다"며, "신입사원으로서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질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노사안전 결의대회 개최



세아베스틸은 자율적인 안전문화 기반을 정착시키고, 무재해 사업장 실현을 위해 5월 11일 주조공장 앞에서 안전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안전결의대회는 협력사를 포함한 임직원 4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현장의 불안정한 요인으로 인해 중대 재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임직원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안전문화 기반을 정착시키도록 하자는데 의의를 두었다.

여사원 역량개발과정 실시



세아베스틸은 5월 12~13일까지 1박 2일간 한국표준협회 인재개발원에서 여사원 역량개발과정을 실시했다. 총 24명이 참여한 이번 교육은 신뢰받는 사원으로서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사고 고취, 회사 비전과 개인 비전을 공유하는 데 교육의 목적을 두고, 내면의 소통, 대인관계 소통, 팀워크 및 비전 공유, 팀 빌딩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수강생산본부, 조직 활성화 위한 단합대회 추진



세아베스틸 특수강생산본부는 4월 29~30일까지 조직 활성화 및 의사소통 강화를 위해 지리산에서 단합대회를 추진했다. 특수강생산본부장 외 총 14

명이 참석한 이번 단합대회에서 2011년 상반기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할 수 있다’는 의지를 함께 다졌다. 이날 김병량 전무는 “2011년 상반기 목표 달성을 위해 모두가 한 마음을 가지고 정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사 사회적 책임 실천협약 체결



세아베스틸은 4월 29일 신홍수 지원본부장, 유병원 노조수석부위원장, 고용노동부 정언기 군산지청장, 담당 근로감독관, 각 협력업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노사의 사회적 책임 실천선언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실천대회의 목적은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을 위한 협력업체 노사의 사회적 책임 실천 결의 다짐과 노사문화 정착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있다. 협약식은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장 및 신홍수 지원본부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선언서 낭독, 협약서 조인식,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 세아특수강

한림디자인고등학교와 산학협약 체결



충주공장은 5월 17일 충주시 소재의 한림디자인고등학교와 산학협력교류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산학협력교류는 학교의 맞춤형 교육과정과 취업지

도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에게 적극적인 취업 기회를 마련해 주고자 진행된 것이다. 이번 협약식으로 세아특수강과 한림디자인고등학교는 연계를 통한 상호 발전과 미래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창의적인 인재 양성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 한국번디

평택공장, 제32회 창립기념식 개최



평택공장은 5월 17일 제32회 창립기념식을 개최했다. 임직원 모두가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진행된 기념식에서는 장기 근속사원 및 모범사원 표창

수여식과 업적부문 금상과 제안상을 시상했다. 전규동 대표는 기념사를 통해 “세아 100년 대계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인의식과 사명감을 갖는 게 우선”이라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정적인 노력을 거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평택공장, 제4회 세계인의 날 봉사활동 참여

한국번디가 제4회 세계인의 날을 맞아 평택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된 기념행사 지원에 나섰다.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 결혼 이민자들이 참여하여 바자회나 음식부스를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자국의 전통과 문화를 알리는 이번 행사에서 한국번디는 행사를 지원하는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의 다문화 가족들과 친목을 도모하며 지역 내 사회통합을 위한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평택공장, 춘계 आय회 개최



평택공장은 5월 27일 춘계 आय회를 개최했다. 임직원들의 단합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आय회에서는 국내 최고의 목조건물인 국보 49

호 수덕사 대웅전과 함께 해미읍성을 둘러보며 임직원들 간의 화합과 결속을 다졌다.

광주공장, 상반기 노사 워크숍 개최



광주공장은 제주도에서 5월 17~18일 이틀간 ‘WIN-WIN 노사 워크숍’을 개최했다. 노사 파트너십 3개년 계획 및 재정지원 프로그램

내용을 공유하고, 공정 간담회 내용을 검토하는 등 광주공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보다 선진적인 노사 화합을 위한 토대 마련에 한 발짝 다가섰다. 한편, 이번 워크숍은 노사발전재단에서 주최하는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정부의 지원으로 진행됐다.

광주공장, 독거노인을 위한 이벤트 개최



광주공장은 5월 19일 광주 광산구 노인복지센터와 연계하여 ‘한국번디와 함께하는 행복여행’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신체적,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외출 기회가 적은 중풍이나 치매 노인 30여 명을 유성온천 나들이에 초대하여 그들의 소외감이나 외로움을 잠시나마 덜어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진행됐다. 이외에도 광주공장은 지난 4월부터 매일 독거노인들을 찾아가 목욕봉사도 실시하고 있다.

» 세아에샵

한길한가족 체육대회 개최



4월 29일 세아에샵은 창원 가음정 운동장에서 한길한가족 체육대회를 실시했다. 전 임직원 및 가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다채로운 체육행사는

물론, 전 임직원이 함께할 수 있는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가미해 재미를 더했다. 세아에샵은 매년 한길한가족 체육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전 임직원의 화합과 화목을 다질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왔다.

26주년 창립 기념식 개최



세아에샵은 5월 11일 26주년 창립기념식을 개최하여 장기 근속사원에 대한 포상을 비롯해 상공회의소 표창, 모범사원, 우수

협력업체, 대리점 우수사원 등에 대한 시상을 진행했다. 유덕상 대표는 기념사를 통해 “세아에샵의 새로운 반세기를 시작하는 중요한 첫 해이므로 세아에샵 임직원 전체가 변화와 혁신의 주체가 되어 창의력에 기초한 열정과 헌신으로 세계 최고의 회사로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챌린지 리더와의 야간산행 실시

세아에샵은 5월 17일 임원들과 세아에샵의 챌린지 리더들이 함께하는 야간산행을 실시했다. 15명이 참여한 이번 산행에서는 새롭게 개척한 대암산 D코스를 선택하여 임직원이 함께 난코스를 체험하며 정상에 올랐다. 유덕상 대표는 세아에샵 챌린저 리더들이 교육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것을 격려하며, 리더로서 최선을 다해 역량을 키우고, 교육을 통해 얻은 지식과 아이디어를 후배들에게 전파하는 멘토로서의 역할도 당부했다.

친선 족구대회 개최



4월 12일부터 5월 30일 세아에샵에서는 사내 친선 족구대회가 개최됐다.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과 사원 간의 유대감 및 활력 증강을 목적으로 개최된

이번 대회는 공장 부문 사무기술직, 전문직, R&D 전문직, 사내 협력업체 등 총 14개 팀이 점심시간과 현장 근무 교대시간을 이용하여 경기를 펼쳤다. 공인축구심판 자격증을 소지한 사내 심판의 매끄러운 경기 운영과 경영진의 큰 관심 속에서 진행된 대회의 우승은 후처리 A팀에게 돌아갔다.

후처리 B팀, 금연 선포식 개최



5월 22일 전문직군 후처리 B팀 조원들이 회사에서 추진하는 금연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고, 조원들의 금연활동을 독려하고자 자체적으로 금연 선포 선서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재봉 조원의 선창과 함께 조원들이 모두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금연 성공을 다짐했다.

한마음그림그리기대회 개최

5월 28일 세아에샵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제14회 사원자녀 초청 한마음 그림 그리기 대회를 개최했다. 약 100여 명의 사원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그림 그리기, 글짓기 등의 공식 일정 외에도 큰 공굴리기, 방석 릴레이, 댄스 경연 등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가 마련되어 이날 하루 회사를 세아가족들의 웃음으로 가득 채웠다.

» 세아메탈

창원공장, 제18회 사원가족 체육대회 개최

4월 30일 세아메탈 창원공장에서 전 임직원과 가족들이 참여하는 제18회 사원가족 체육대회가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각종 구기종목 대회와 어린이 사생대회 등 사원과 가족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전 임직원이 하나 되는 시간을 가지며 경쟁력 확보를 통한 장기 목표 달성 의지를 다졌다.

» 세아이엔티

산업기기부문 야구동호회 창단



세아이엔티 플랜트 사업부 산업기기부문의 야구동호회가 창단됐다. 본 야구동호회는 동료애와 협동심을 발휘하여 건강증진 및 심신단련을 위해 탄생

됐다. 향후 직장인 야구대회에 참가하여 회사를 홍보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모범적인 동호회로 만들어 가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 강남도시가스

상반기 가스안전 캠페인 실시



5월 4일 강남도시가스 임직원 및 고객센터 센터장 등 약 80여 명이 개봉역과 구일역에서 거리환경 정비와 가스안전 가두 캠페인에

나섰다. 가정의 달을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보일러와 가스레인지의 안전사용 요령, 자율안전점검 요령 등을 홍보하는 한편, 2개 반, 4개 조로 나누어 개봉역과 구일역 일대 거리를 청소하였다. 또한 가스사용 계도를 위한 홍보물 배포와 안전구호를 제창하며 올바른 가스안전사용 방법을 홍보했다.

재해예방 안전교육 실시



강남도시가스는 5월 11일 기술 및 관리직 직원 60여 명을 대상으로 응급처치법 및 심폐소생술을 다룬 재해예방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올해 두 번째 실시된 이

교육에서는 구로소방서 홍보교육팀의 김창호 강사를 초빙하여 업무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급 상황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처요령을 훈련했다. 특히 심장의 기능이 정지하거나 호흡이 멈추었을 때 사용하는 응급처치법인 심폐소생술 시간에는 직원들이 직접 실습해보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 세아로지스

세아로지스 ‘희망이음 프로젝트’ 참여



세아로지스는 지식경제부와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희망이음 프로젝트’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희망이음 프로젝트’는 전국의 대학생이

지역 기업을 직접 탐방하고 기업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의 대학생과 기업 간 교류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6월 3일 서울 교육문화회관 체육관에서 열린 ‘대학생 지역기업 희망이음 프로젝트’ 발대식에서 류재섭 대표이사는 경상북도 대표기업으로 참석해 최종경 지식경제부 장관으로부터 “우리지역 일하기 좋은 기업” 선정 기념패를 받았다. 선정된 기업들은 지식경제부와 시·도의 공동 주관 하에 전국 우수 300대 기업으로 홍보되며, 대학생 탐방을 통한 지역인재 채용기회 제공, 인력양성 사업, 선도 산업 채용 장려금 우선 지원 등 혜택을 받게 된다.

사우동정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줄 아는
세아인들의 크고 작은 소식들을 알려드립니다.

세아제강

- 결혼 **조민성 본사 구매팀 | 김용훈 본사 대리점팀 | 이원호 포항 생산2팀 | 김성웅 포항 기술연구소
- 출산 **박준형 본사 회계팀 | 임환율 본사 회계팀 | 문대열 포항 설비보전팀 | 김창현 포항 생산1팀 | 박문선 포항 생산2팀 | 한상준 군산 생산1팀 | 김태형 광주영업팀
- 조의 **이춘우 포항 생산1팀(장인) | 박세훈 포항 물류팀(장모) | 최인로 포항 생산1팀(장인) | 김성상 창원 생산팀(장인) | 이창주 군산 품질경영팀(장모)

세아베스틸

- 결혼 **전종형 제강설비팀 | 김영관 단)영업팀
- 조의 **박경배 제강팀(부친) | 박균엽 연주팀(부친) | 박종복 제강팀(부친) | 유점배 대형압연팀(모친) | 신지형 소형정장팀(장인)

세아특수강

- 입사 **이상은 충주 지원혁신팀 | 심호연 충주 물류자재팀 | 이상엽 포항 물류자재팀
- 출산 **박규태 포항 생산팀 | 이창호 충주 품질보증팀
- 조의 **신민철 포항 생산팀(조모)

한국번디

- 결혼 **오경대 평택 생산팀 | 이선정 광주 업무지원팀 | 박동희 광주 생산팀
- 출산 **박준우 평택 경영기획팀 | 최갑식 광주 생산팀 | 백광선 광주 생산팀
- 조의 **김희숙 평택 품질경영팀(부친) | 최성 평택 영업기획팀(장인) | 윤성중 평택 연구1팀(조모) | 박성진 평택 생산팀(장인) | 이정철 평택 생산팀(숙부) | 김정흠 평택 생산팀(장인) | 박형근 광주 품질경영팀(장모)

세아에샵

- 결혼 **허영철 제품개발팀
- 출산 **임희대 제품개발팀 | 손인석 전략사업팀

세아이엔티

- 입사 **김수연 터보 태양전자개발팀 | 김동섭 산업기기 설비기술팀
- 결혼 **김민재 산업기기 생산팀 | 김현수 터보 연구개발팀 | 김정훈 화공기기 생산팀 | 정두환 터보 품질보증팀

강남도시가스

- 입사 **이수지 업무지원팀
- 조의 **이우익 요금팀(장인) | 윤대정 경영관리팀(부친)

Quiz¹ 다른 그림 찾기

두 장의 다른 사진에서 다른 곳 다섯 군데를 찾아 주세요.
정답표시는 업서에 해주세요.

원본



문제



SeAH Reader's

다들 바쁘게 일을 하는 와중에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케이크를 준비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들이 웃음과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가슴 따뜻해지는 소식 많이 전해주세요. 세아 파이팅!

강보민 대구 북구 산격4동

중동의 미래 언덕에 세아의 공장이 생겼군요. 강관 생산을 위해 해외에 진출하는 세아의 미래가 높게 그려집니다. 중동에 세운 새로운 공장을 기점으로 세계 곳곳에 세아의 기상을 세워 나가길 기원합니다.

박동술 경북 영덕군 축산면

‘사랑의 베이커리’에 등장한 세아의 멋쟁이 3인방의 웃는 모습이 정말 좋습니다. 거기에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정성 들여 케이크까지 손수 만들어 선물하는 고운 마음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무척 부럽습니다.

윤태식 경기도 광명시 철산3동

*사보참여 안내

〈세아가족〉사보에서는 다양하고 많은 세아인들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주변에 특별한 행사나 사연이 있는 사우들이 있다면 적극 추천 바라며, 직접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도 망설이지 말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세아가족〉은 세아인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세아인들을 위한 매체로 거듭나겠습니다.

문의 : cmk@seah.co.kr / 02-3783-8163

*지난호 퀴즈 정답



*지난 퀴즈 당첨자

강보민 대구 북구 산격4동
조규배 경기 고양시 덕양구
김춘길 세아제강 포항공장 물류팀
조용철 경북 포항시 남구 해도동
박동술 경북 영덕군 축산면 도곡리
윤태식 경기 광명시 철산3동
황석영 경북 경주시 건천읍 용명리
홍경석 대전 서구 둔산동
김만웅 경북 포항시 남구 장흥동
서상태 경북 포항시 북구 두호동

*〈세아가족〉사보기자

박승균 세아제강 인력개발팀(본사)
최영훈 세아제강 업무지원팀(포항)
고재영 세아제강 업무지원팀(창원)
임아림 세아제강 업무지원팀(군산)
선민석 세아제강 업무지원팀(강관2공장)
이정화 세아베스틸 기획팀
이동진 세아특수강 기획인사파트(서울)
이태원 세아특수강 혁신파트(본사)
박수연 한국번디 경영기획팀
손은숙 세아에샵 경영지원실
김종훈 세아메탈 경영기획팀
이상기 세아이엔티 플랜트사업지원팀
김민구 세아엠앤에스 서울사무소
이근기 강남도시가스 경영관리팀
이지훈 세아로지스 업무지원팀
권용재 해덕스틸 경영지원팀
김승렬 드림라인 경영지원팀

세아가족 신바람 캠페인 「소통」 편



“우리 막내, **파이팅!**!”

“세철 씨! 기획안 다시 써와요. 내가 지난 번 회의 때 말한 방향이랑 전혀 다르잖아.”
부장님 꾸중에 세철 씨의 어깨가 축 처집니다. 처음 써 보는 기획안이라 밤늦도록 자료를 조사하고 준비했는데 잘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더더욱 자신감이 줄어듭니다.

퇴근길.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가는 세철 씨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당동! “세철 씨! 힘내! 나도 처음엔 늘 실수투성이었어. 그러면서 크는 거야~^^”

당동! “우리 막내, 파이팅! 선배가 많이 아끼는 거 알지?”

당동! “엉엉 울면서 집에 뛰어가고 있는 거 아니지? 울지 말고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
선배 좋다는 게 뭐야? 힘내!”

“네! 저 진짜 열심히 할게요!!!!”

골목길이 떠나가라 외치는 세철 씨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 찹니다.

SECTION
F



Business

[HONOLULUADVERTISER.COM/business]



GM under pressure

Ailing automaker urged to slash dividend | F3

BUSINESS EDITOR | DAVID BUTTS

E-mail: dbutts@HonoluluAdvertiser.com | Telephone: 535-2453

신비로운 힘센 미녀
자구를 지켜라!



\$11M

records filed with the U.S. Bankruptcy Court, six firms charged Aloha about a million dollars or more for their work while bills from a seventh firm were just under a million dollars.

They include:
• Berger Singerman P.A. of Miami, which billed \$3.1 million as

SEE ALOHA, F2

Hawai'i is world's lab for biotech

Airline's bills still far less than Hawaiian's \$34M reorganization

BY RICK DAYSOG
Advertiser Staff Writer

Aloha Airlines' bankruptcy will cost at least \$11 million in legal and consulting fees, making it

one of the most costly reorganizations in the state's history.

The legal tab for the state's airline is less than the \$34 million related legal and consulting fees paid by Hawaiian Airlines, Advertiser.com study of the airline's records shows.

David Butts, law professor

41C

STATUS MAUI ECONOMY SOLID PER

Strong visitor spending helped Maui's economy. The island's tourism industry is expected to bring in more than \$150,000 for the year.

REBECCA BREYER / THE HONOLULU ADVERTISER

세아에샵 품질경영팀 김영숙 과장

땅에서 솟아났는지, 하늘에서 내려왔는지
번개같이 나타나 정의를 빛내는 세아에샵의 원더우먼!